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졸업자의 취업 특성 및 취업지역에 따른 임금효과

황광훈*·김진성**

I. 들어가며

청년층 고용문제는 코로나19 감염사태의 장기화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OECD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당면과제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의 노동시장에서의 기술 및 재능 기여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등에서도 청년층의 고용시장 진입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조동훈, 2020).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사태로 인해 청년 노동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저학력층, 여성, 비정규직, 비수도권 지역 청년층과 같은 고용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청년 고용문제는 지역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발전해 온 결과,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황광훈·홍석현, 2021).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시장에서 비수도권 졸업자들이 수도권보다 큰 타격을 받았다.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66.8%였으나 비수도권은 6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 부연구위원(hunzzang96@keis.or.kr)

** 김진성, 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 연구원(sury1008@keis.or.kr)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졸업자가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 각 졸업자 집단이 취업한 일자리의 소재 지역이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이다. 또한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학 소재지별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대도시로의 고학력 청년층이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분석은 지역노동시장 정책 방향을 세우는데 기초자료와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졸업자의 특성과 취업한 일자리의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른 취업 성과 등을 분석한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기준으로 대학교-현직장의 소재지역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도록 한다.

II. 분석자료 및 유형변수 설명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졸업자(2~3년제 포함)의 특성과 취업한 일자리의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른 취업 성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분석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22년 현재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는 1-14차(2007~2020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고, 추가로 분석과정에서 포함을 시키거나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에 대해서는 1~14차 전체자료와 연결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청년패널조사의 직업력 자료는 1차(2007년)부터 14차(2020년)까지 각 조사 년도(차수)별 첫 일자리, 현재 일자리, 경험 일자리 등 모든 일자리 경험 정보를 모아놓은 자료이다. 먼저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졸업자 중 2010년 이후 노동시장 경험이 있는 각 개인을 추출하여 현재 일자리를 포함한 관련 직업력 정보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1~14차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학교정보(전공, 소재지역 등)와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직업훈련, 자격증 경험 등의 정보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구축한 직업력 자료(일자리 정보 등)와 전체자료(학교 및 개인정보 등)를 개인ID별로 연결(Merge)하여 최종적으로 3,366명의 최종 데이터를 구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소재지(수도권 및 비수도권)와 현 직장 소재지(수도권 및 비수도권)를 연결하여 총 4가지의 유형 변수를 구성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표본을 대상으로 대학소재지 정보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한 현 직장 소재지 정보를 토대로 총 4개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성

하였다. 여기서 편의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전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직장 관련 정보(임금, 종사상 지위, 소재지역, 기업체 규모 등)는 직업력 정보에서 수집된 현재 일자리의 마지막 관측된 시점 기준이다.

유형 1: 대학교 수도권 / 현직장 수도권

유형 2: 대학교 수도권 / 현직장 비수도권

유형 3: 대학교 비수도권 / 현직장 수도권

유형 4: 대학교 비수도권 / 현직장 비수도권

Ⅲ.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특징 및 취업 특성

본 장에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인구학적 특징 및 취업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표 1>)는 다음과 같다(분석대상이 되는 전체 표본의 수는 3,336명 중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1,368명이며,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1,968명이다).

첫째,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 내 남성의 비율은 46.3%, 여성의 비율은 53.7%로 나타났다. 표본의 범위를 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남성의 비율은 45.9%, 여성의 비율은 54.1%였으며,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남성의 비율은 46.5%, 여성의 비율은 53.5%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전체 표본 내 성별 분포와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집단 내 성별 분포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 내 25세 미만의 비율은 11.7%, 25~29세 비율은 43.4%, 30~34세 비율은 35.5%, 35세 이상 비율은 9.4%로 나타났다. 표본의 범위를 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25세 미만 비율은 11.5%, 25~29세 비율은 40.7%, 30~34세 비율은 37.9%, 35세 이상 비율은 9.9%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25세 미만 비율은 11.9%, 25~29세 이하 비율은 45.3%, 30~34세 비율은 33.8%, 35세 이상 비율은 9.0%로 확인된다. 연령별 분포에서도 전체 표본 내 분포와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집단 내 분포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거주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 내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은 50.4%, 중부권 거주자의 비율은 13.8%, 호남권 거주자의 비율은 8.9%, 영남권 거주자의 비율은 26.8%로 나타났다. 표본의 범위를 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은 90.1%, 중부권 거주자의 비율은 4.0%, 호남권 거주자의 비율은 2.0%, 영남권 거주자의 비율은 3.9%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은 22.9%, 중부권 거주자의 비율은 20.7%, 호남권 거주자의 비율은 13.8%, 영남권 거주자의 비율은 42.7%로 확인된다. 전체 표본 내 거주지역 분포와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집단 내 거주지역 분포에 확실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자명한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 내 미혼자의 비율은 76.9%, 기혼자의 비율은 23.1%로 나타났다. 표본의 범위를 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미혼자의 비율은 76.7%, 기혼자의 비율은 23.3%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미혼자의 비율은 77.0%, 기혼자의 비율은 23.0%로 확인된다. 혼인상태별 분포에서도 전체 표본 내 분포와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집단 내 분포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

(단위: 명, %)

	전체	전체	수도권 대학 졸업	비수도권 대학 졸업
		3,336	1,368	1,968
성별	남성	46.3	45.9	46.5
	여성	53.7	54.1	53.5
연령	25세 미만	11.7	11.5	11.9
	25~29세	43.4	40.7	45.3
	30~34세	35.5	37.9	33.8
	35세 이상	9.4	9.9	9.0
거주지역	수도권	50.4	90.1	22.9
	중부권	13.8	4.0	20.7
	호남권	8.9	2.0	13.8
	영남권	26.8	3.9	42.7
혼인상태	미혼	76.9	76.7	77.0
	기혼	23.1	23.3	23.0

주: 1. 연령은 현재 일자리에 입직한 시점 기준임(이하 표에서는 생략)

2.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중부권은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권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임 (이하 표에서는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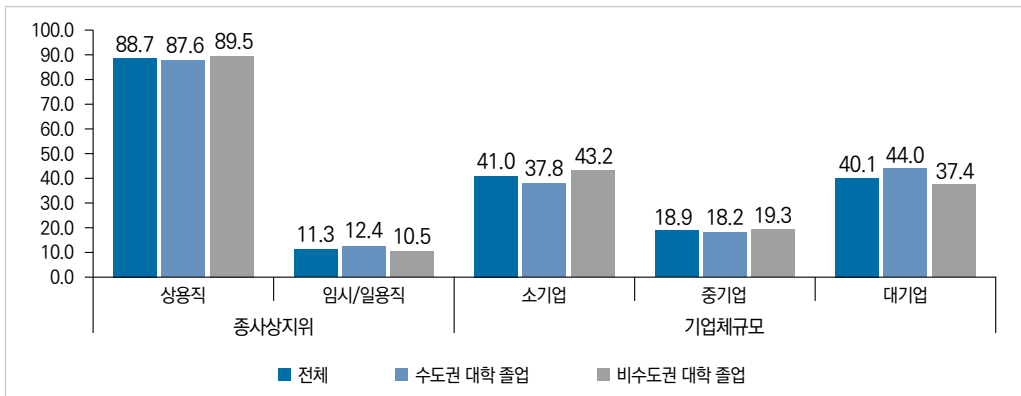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다음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현 직장 종사상 지위 및 기업체 규모 분포(그림 1)를 살펴보겠다. 첫째,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에서는 전체 표본 내 상용직의 비율은 88.7%,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11.3%로 나타났다. 표본의 범위를 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상용직의 비율은 87.6%,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12.4%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상용직의 비율은 89.5%,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10.5%로 확인된다. 종사상 지위 분포는 전체 표본과 지역별 졸업자 집단 모두에서 상용직이 약 80% 후반대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대졸자들이 종사하는 기업체 규모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 내 소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41.0%, 중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18.9%,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40.1%로 나타났다. 표본의 범위를 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소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37.8%, 중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18.2%,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44.0%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소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43.2%, 중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19.3%,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37.4%로 확인된다.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집단 내에서 중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소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대졸자 집단 내 비율은 수도권 대졸자 집단 내 비율에 비해 약 5%p 높았으며, 대기업 종사자의 수도권 대졸자 집단 내 비율은 비수도권 대졸자 집단 내 비율에 비해 약 7%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현 직장 종사상 지위 및 기업체 규모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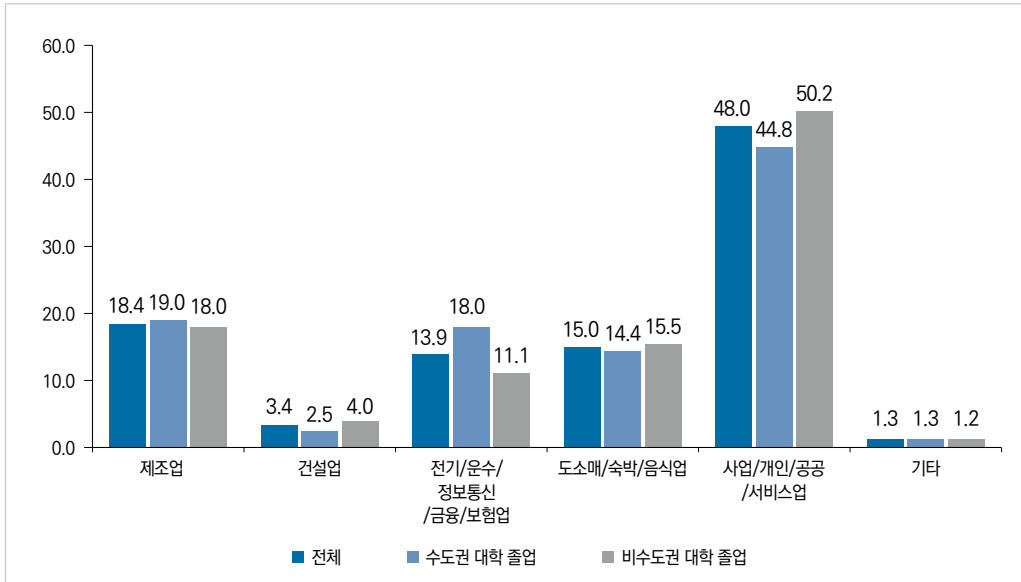
주: 기업체규모는 소기업은 50인 미만, 중기업은 50-299인, 대기업은 300인 이상으로 함(이하 표 및 그림에서는 생략)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다음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현 직장 산업/직업 분포([그림 2], [그림 3])를 살펴 보겠다. 첫째, 산업 분포에서 전체 표본 내 ‘제조업’의 비율은 18.4%, ‘건설업’의 비율은 3.4%,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의 비율은 13.9%, ‘도소매/숙박/음식업’의 비율은 15.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비율은 48.0%, ‘기타’의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표본의 범위를 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제조업’의 비율은 19.0%, ‘건설업’의 비율은 2.5%,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의 비율은 18.0%, ‘도소매/숙박/음식업’의 비율은 14.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비율은 44.8%, ‘기타’의 비율은 1.3%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제조업’의 비율은 18.0%, ‘건설업’의 비율은 4.0%,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의 비율은 11.1%, ‘도소매/숙박/음식업’의 비율은 15.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비율은 50.2%, ‘기타’의 비율은 1.2%로 확인된다. 전체 표본 내 분포와 비교 시,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며,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 내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의 비율은 36.0%,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의 비율은 14.1%,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의 비율은 23.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의 비율은 5.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영업/판매/운전/운송직’의 비율은 14.5%,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농림어업직’의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표본의 범위를 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의 비율은 41.4%,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의 비율은 15.7%,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의 비율은 16.8%,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의 비율은 7.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영업/판매/운전/운송직’의 비율은 13.2%,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농림어업직’의 비율은 5.3%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한정 시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의 비율은 32.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의 비율은 12.9%,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의 비율은 27.7%,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의 비율은 4.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영업/판매/운전/운송직’의 비율은 15.4%,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농림어업직’의 비율은 7.6%로 확인된다. 전체 표본 내 분포와 비교 시,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며,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현 직장 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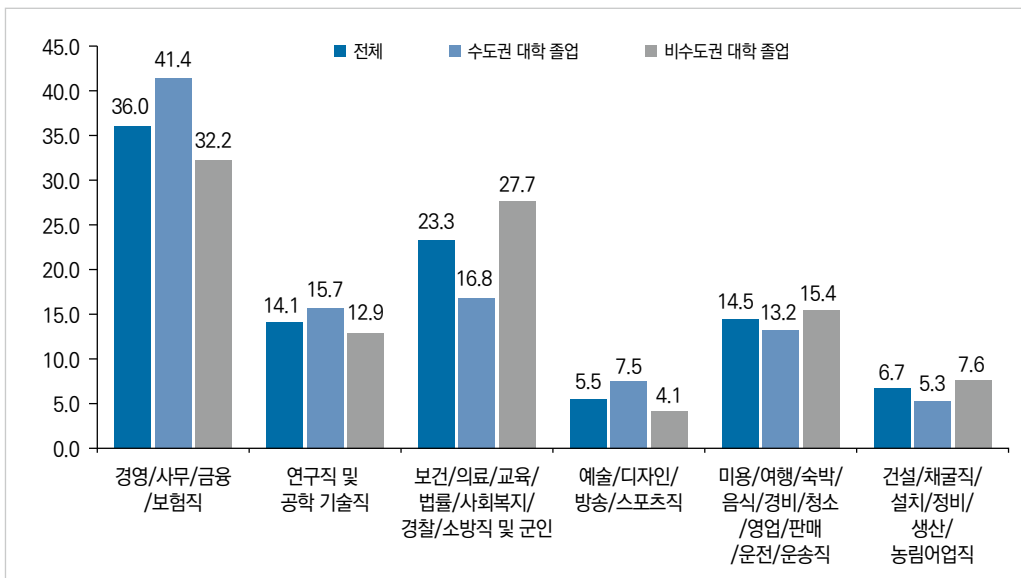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3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현 직장 직업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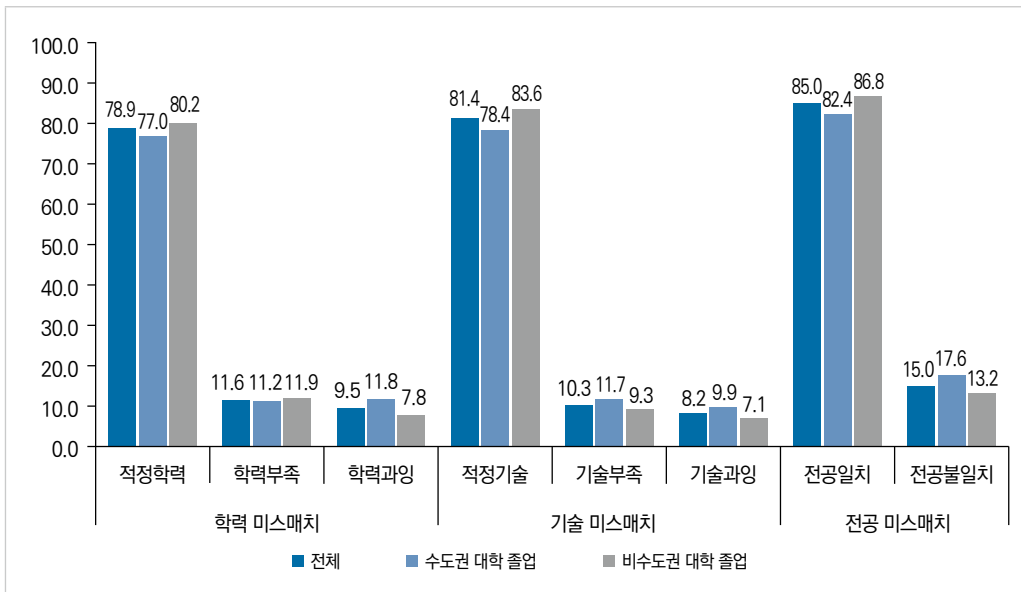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다음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주관적 미스매치¹⁾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각 미스매치 상태에 따라 대학 졸업자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그림 4). 첫째, 학력 미스매치의 경우 수도권 대학 졸업자 집단에서는 학력부족(상향취업)과 학력과잉(하향취업)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집단에서는 학력부족(상향취업)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술 미스매치의 경우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집단 모두에서 기술부족(상향취업)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전공 미스매치에서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17.6%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전공불일치 비율 1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현 직장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분포

(단위: %)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1) 미스매치에 대한 판정을 위해 어떤 변수를 어떤 기준으로 “미스매치”와 “비(非) 미스매치”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미스매치의 판단 기준은 주관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일치 등 3가지로 항목으로 구분하여 미스매치를 측정하였다. 청년패널조사에서는 5개 범주로 그 정도를 응답받고 있는데,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경우 “① 수준이 아주 낮다, ② 수준이 낮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미스매치 상태 중 “학력부족 및 기술부족”으로 보았다. 그리고 “③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비(非) 미스매치로 “적정학력 및 적정기술”로 간주하였다. 전공일치의 경우는 “① 전혀 맞지 않다, ② 맞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미스매치 상태로, “③ 그런대로 맞다, ④ 맞는다, ⑤ 아주 잘 맞다” 는 비(非) 미스매치 상태로 보았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현직장 월평균 소득(실질임금)²⁾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284.8만원,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262.6만원으로,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임금 비중은 92.2%였다. 분석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시켰을 경우 비수도권 남성 졸업자의 임금은 수도권 남성 대졸자의 90.8%로 더 낮아졌으며, 이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임금격차가 더 커진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우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임금 비중은 93.5%로, 이는 남성에 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졸자 간 임금격차가 낮음을 시사한다.

표 2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현 직장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

		전체	수도권 대학 졸업(A)	비수도권 대학 졸업(B)	임금격차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임금 비중(B/A×100)
전체		271.7	284.8	262.6	22.2	92.2
성별	남성	305.6	323.3	293.5	29.8	90.8
	여성	242.5	252.2	235.7	16.5	93.5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지금부터는 대학소재지(수도권 및 비수도권)와 현직장 소재지(수도권 및 비수도권)를 연결하여 총 4가지의 유형 변수를 구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특징 및 취업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취업 지역 유형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분포(<표 3>)를 살펴보면, 성별 분포에서는 유형1은 남성 44.0%, 여성 56.0%이고, 유형2는 남성 63.2%, 여성 36.8%, 유형3은 남성 46.7%, 여성 53.3%이고, 유형4는 남성 46.5%, 여성 53.5%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25-34세 연령범위에 약 80%가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의 경우 직업력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졸업 후 현재 일자리에 입직한 시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현 거주지역 분포에서는 유형1은 수도권 거주자가 9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유형2는 수도권 41.4%, 중부권 27.8%, 호남권 9.8%, 영남권 21.1%로 지역별로

2) 월평균 임금은 직업력 정보에서 수집된 현재 일자리의 마지막 관측된 시점 기준이며, 통계청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2020년=100)하여 실질임금으로 재산출한 값이다. 또한 본 분석에서 사용한 임금통계값은 현재 일자리 시점의 임금을 이용해 산출하므로, 서로 다른 시점(2010~2020년)에서의 임금통계이다. 따라서 다른 조사통계들의 특정시점(횡단면)에서의 임금통계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금통계는 일자리 진입 시점, 조사대상의 연령 등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유형3은 수도권 69.7%, 중부권 9.0%, 호남권 6.7%, 영남권 14.5%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4에서는 수도권 3.4%, 중부권 25.5%, 호남권 16.7%, 영남권 54.4%로 비수도권 지역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혼인 상태의 경우 유형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유형1(수도권 대학-수도권 일자리)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후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일자리로 취업한 경우이므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 출신(출생 등) 또는 오랜기간 수도권에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한 후, 수도권 안에 있는 직장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수도권을 이탈하지 않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유형2(수도권 대학-비수도권 일자리)의 경우는 표본의 규모(133명)는 작지만,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일자리로 이행한 경우인데, 상당수(41.4%)는 수도권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58.6%는 비수도권에 거주지가 분포되어 있다. 현재 일자리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역이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3(비수도권 대학-수도권 일자리)의 경우는 유형2와 반대로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현재 일자리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이다. 특히, 69.7%가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 상당 규모의 청년층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형2(133명)보다는 유형3(578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지역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형4(비수도권 대학-비수도권 일자리)의 경우는 유형1과 반대인 경우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후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으로 취업한 경우이다. 즉 비수도권 지역(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이 대부분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상당수가 각 비수도권 지역 출신(출생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대학-취업 지역 유형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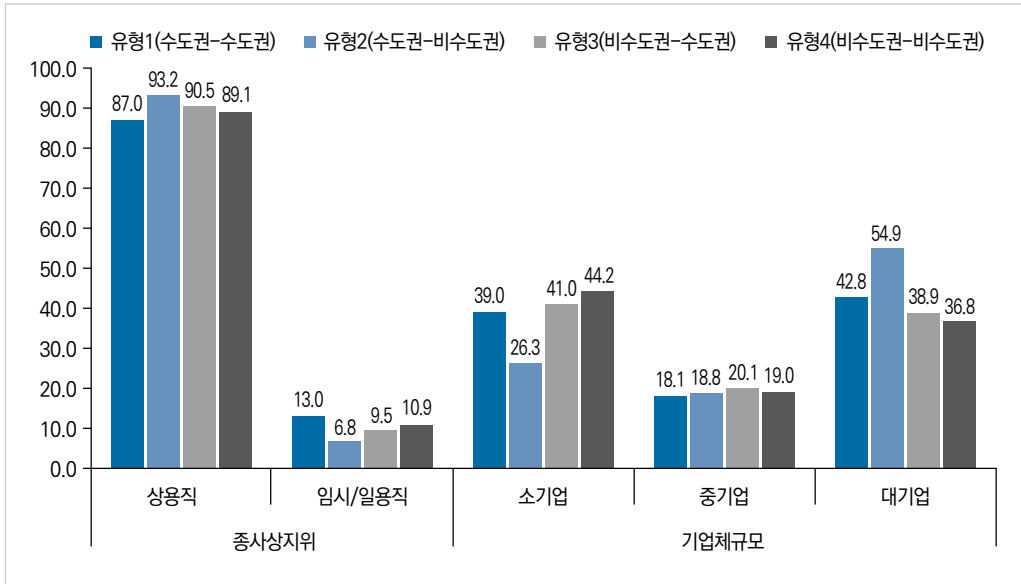
		유형 1(수도권-수도권)	유형 2(수도권-비수도권)	유형 3(비수도권-수도권)	유형 4(비수도권-비수도권)
전체		1,235	133	578	1,390
성별	남성	44.0	63.2	46.7	46.5
	여성	56.0	36.8	53.3	53.5
연령	25세 미만	11.7	9.8	10.4	12.5
	25~29세	40.9	39.1	47.6	44.4
	30~34세	37.7	39.8	33.4	34.0
	35세 이상	9.8	11.3	8.7	9.1
거주 지역	수도권	95.3	41.4	69.7	3.4
	중부권	1.5	27.8	9.0	25.5
	호남권	1.1	9.8	6.7	16.7
	영남권	2.1	21.1	14.5	54.4
혼인 상태	미혼	77.2	72.2	78.5	76.3
	기혼	22.8	27.8	21.5	23.7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다음은 대학-취업 지역 유형에 따른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기업체 규모, 주당 평균근로 시간이다([그림 5], [그림 6]). 종사상 지위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상용직 비율이 9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형1은 임시/일용직 비율이, 유형2는 상용직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기업체 규모에서는 50인 미만 소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유형3과 유형4가 높고(41.0%, 44.2%), 대기업(300인 이상)에 취업한 경우는 유형1과 유형2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2.8%, 54.9%).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경우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비교적 고용상태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대학을 졸업한 경우, 비수도권 지역 일자리로 진입한 청년층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에 입직한 청년층도 상당수 중소기업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유형2의 경우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여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하였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있는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 대학-취업 지역 유형에 따른 종사상 지위/기업체 규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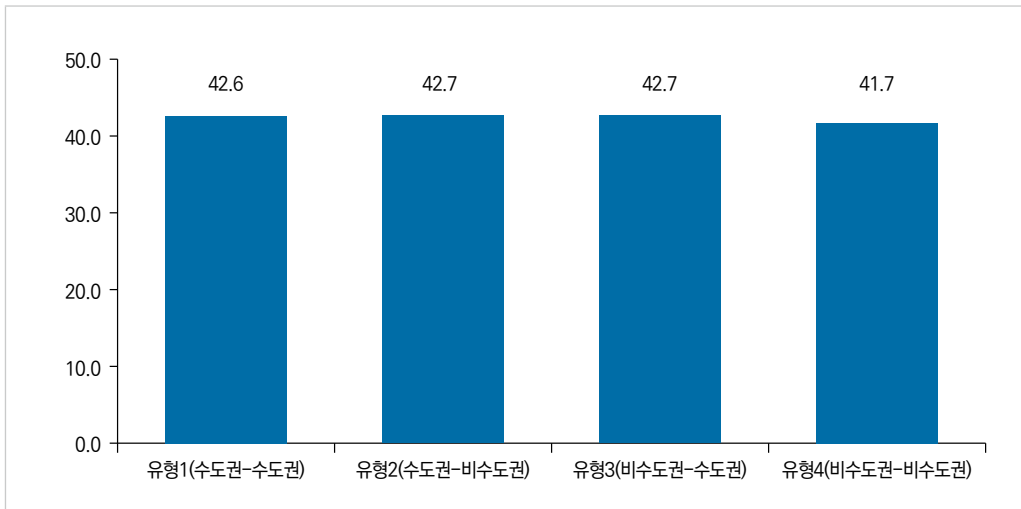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6 대학-취업 지역 유형에 따른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산업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제조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직업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유형3과 유형4는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이 각각 25.1%, 28.8%로 유형1과 유형2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대학-취업 지역 유형에 따른 산업/직업 분포

(단위: %)

		유형 1 (수도권-수도권)	유형 2 (수도권-비수도권)	유형 3 (비수도권-수도권)	유형 4 (비수도권-비수도권)
산업	제조업	19.0	18.8	18.2	17.9
	건설업	2.3	3.8	2.9	4.5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 보험업	17.8	19.5	14.9	9.5
	도소매/숙박/음식업	15.1	7.5	17.1	14.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4.5	48.1	45.7	52.1
	기타	1.2	2.3	1.2	1.2
직업	경영/사무/금융/보험직	41.1	44.4	29.8	33.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5.5	18.0	18.3	10.6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 경찰/소방직 및 군인	16.6	18.8	25.1	28.8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6	6.8	7.6	2.7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 청소/영업/판매/운전/운송직	14.0	6.0	15.1	15.6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 농림어업직	5.2	6.0	4.2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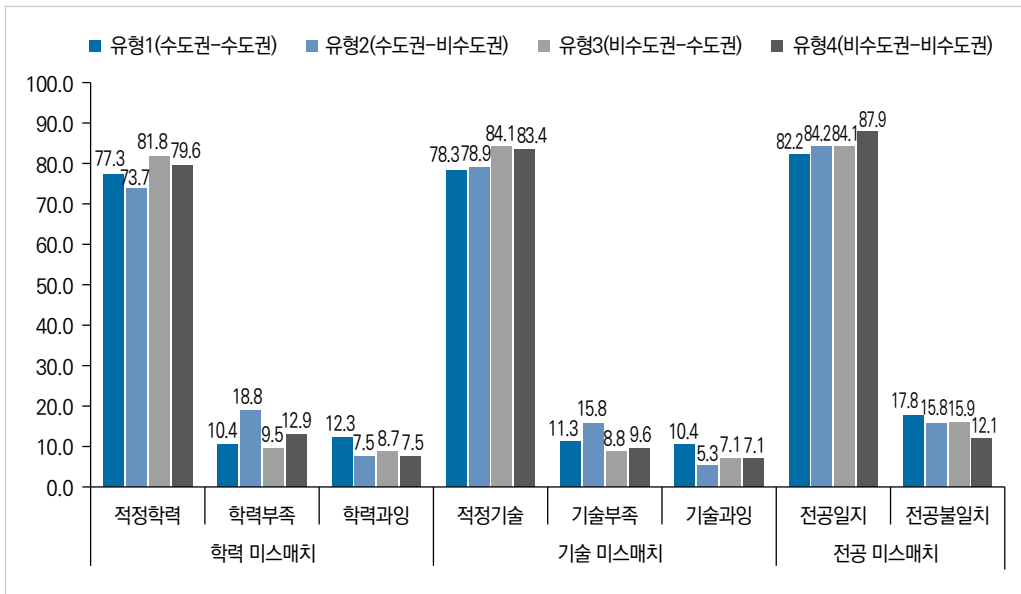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이번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주관적 미스매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각 미스매치 상태에 따라 유형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그림 7]). 학력 미스매치 상태에서는 유형1에서는 학력과잉(하향취업) 현상이, 유형2에서는 학력부족(상향취업)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유형3과 유형4는 적정학력 상태가 높은 비율(81.8%, 79.6%)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 미스매치의 경우도 유형1은 기술과잉(하향취업) 현상이, 유형2는 기술부족(상향취업)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유형3과 유형4는 적정기술 상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 대학졸업자가 수도권 지역 일자리로 이행한 경우 평균적으로 일자리의 질은 유형4(비수도권 대학 졸업-비수도권 일자리 취업)에 비해 비교적 좋은 일자리라

볼 수 있으나,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임시/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입직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하취취업(학력 및 기술과잉) 현상이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 미스매치에서는 유형1은 전공불일치 비율이 17.8%로 타 유형(유형2 : 15.8%, 유형3 : 15.9%, 유형4 : 12.1%)에 비해 비교적 높은 반면, 전공일치 비율은 유형4(87.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대학-취업 지역 유형에 따른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분포

(단위: %)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전체 분석표본의 현재 일자리 월평균 소득(실질임금)은 271.7만원으로 남성은 305.6만원, 여성은 242.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63.1만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9.4%를 차지한다(<표 5>). 대학-취업지역 유형별로 보면, 먼저 유형1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282.5만원으로 남성은 320.8만원, 여성은 252.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68.4만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8.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형2에서는 월평균 소득은 306.4만원으로 남성은 339.4만원, 여성은 249.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89.6만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3.6%를 차지하였다. 유형3에서는 남성(309.3만원)과 여성(254.9만원)의 임금격차가 54.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유형4에서는

남성(286.9만원)과 여성(227.7만원)의 임금격차가 59.2만원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의 임금 수준은 유형4가 255.2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유형4의 여성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227.7만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는 유형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형2의 경우 남성 비율이 63.2%로 타 유형에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 대학 졸업후 비수도권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 중 남성은 비교적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한 반면, 여성은 저임금 일자리로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유형 2의 경우, 분석표본의 규모가 133명으로 유형1(1,235명), 유형3(578명), 유형4(1,390명)에 비해 비교적 작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다. 유형2에 해당되는 분석표본의 수가 적은 이유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비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취업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표 5 대학-취업 지역 유형에 따른 성별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

	전체	유형 1 (수도권-수도권)	유형 2 (수도권-비수도권)	유형 3 (비수도권-수도권)	유형 4 (비수도권-비수도권)
전체	271.7	282.5	306.4	280.3	255.2
남성(A)	305.6	320.8	339.4	309.3	286.9
여성(B)	242.5	252.4	249.8	254.9	227.7
격차(A-B)	63.1	68.4	89.6	54.4	59.2
남성대비 여성임금 비중 (B/A×100)	79.4	78.7	73.6	82.4	79.4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 내 상용직 임금은 283.2만원,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181.5만원으로, 임금격차는 101.7만원,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비중은 64.1%로 나타났다(<표 6>). 대학-취업지역 유형별로 보면, 유형1의 경우 상용직의 임금은 295.6만원,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195.1만원으로, 임금격차는 100.5만원,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비중은 66.0%으로 나타났다. 유형2의 경우 상용직의 임금은 315.3만원,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183.2만원으로, 임금격차는 132.1만원,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비중은 58.1%로 나타났다. 유형3의 경우 상용직의 임금은 289.1만원,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196.3만원으로, 임금격차는 92.8만원,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비중은 67.9%로 나타났다. 유형4의 경우 상용직의 임금은 266.7만원,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161.6만원으로, 임금격차는 105.1만원,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비중은 60.6%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격차는 유형2에서

132.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형3에서 92.8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상대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비중 역시 유형2에서 가장 높은 격차(58.1%), 유형 3에서 가장 낮은 격차(67.9%)를 보였다.

표 6 대학-취업 지역 유형에 따른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

	전체	유형 1 (수도권-수도권)	유형 2 (수도권-비수도권)	유형 3 (비수도권-수도권)	유형 4 (비수도권-비수도권)
상용직(A)	283.2	295.6	315.3	289.1	266.7
임시일용직(B)	181.5	195.1	183.2	196.3	161.6
격차(A-B)	101.7	100.5	132.1	92.8	105.1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비중(B/A×100)	64.1	66.0	58.1	67.9	60.6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기업규모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소기업은 232.4만원, 중기업은 268.2만원, 대기업은 313.6만원으로, 대기업과 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81.2만원, 대기업 대비 소기업 임금 비중은 74.1%로 나타났다(<표 7>). 대학-취업지역 유형별로 보면, 유형2에서 대기업과 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123.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3에서 48.9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대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대기업 대비 소기업 임금 비중 역시 유형2에서 가장 높은 격차(65.1%), 유형 3에서 가장 낮은 격차(84.0%)를 보였다.

표 7 대학-취업 지역 유형에 따른 기업규모별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

	전체	유형 1 (수도권-수도권)	유형 2 (수도권-비수도권)	유형 3 (비수도권-수도권)	유형 4 (비수도권-비수도권)
소기업(A)	232.4	233.2	230.2	256.6	222.5
중기업(B)	268.2	277.5	275.4	279.8	254.5
대기업(C)	313.6	329.6	353.5	305.5	294.8
격차(C-A)	81.2	96.4	123.3	48.9	72.3
대기업 대비 소기업 임금 비중(A/C×100)	74.1	70.8	65.1	84.0	75.5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IV.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취업지역에 따른 임금효과

본 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대학교 소재 지역-현 직장 지역 유형(유형1~유형4)에 따른 임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임금방정식 추정)하고 이에 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을 통해서 실증 분석하고자 하는 임금방정식³⁾(Mincerian Wage Equation) 모형은 아래와 같다.

$$Y_i = \beta_0 + \beta_1 Z_i + \beta_2 X_i + \epsilon_i$$

위 식에서 종속변수 Y_i 는 대학 졸업 후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획득한 월평균 임금수준(실질임금)에 자연로그를 취한 것이다. 사용한 설명변수 X_i 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와 직장과 관련된 변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개인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조사 시점에서의 연령과 성별, 결혼 여부, 가구주 등의 더미 변수와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취득 등의 더미 변수 등을 사용하였다. 이런 개인의 특성들이 반영된 변수와 함께 현재 근로자가 속한 직장과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였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현재 일하고 직장에서의 종사상지위, 기업규모, 근로시간, 산업, 노동조합 유무, 산업 및 직업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의 학력, 기술, 전공 미스매치 변수를 추가하였다.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대학-취업 지역 유형별 변수 Z_i 는 총 4개 유형의 더미 변수로 구성되었다. 일자리 특성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대학-취업 지역 유형별 임금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비율은 46%로 여성의 비율보다 8%p 낮게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 진입시점에서의 평균연령은 29.2세이고, 기혼자가 23%, 가구주인 경우가 31%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경험자가 각각 12%, 55%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취업지역 유형별 분포는 유형1(수도권-수도권) 37%, 유형2(수도권-비수도권) 4%, 유형3(비수도권-수도권) 17%, 유형4(비수도권-비수도권) 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3) 노동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임금 결정요인은 Mincer의 임금방정식을 활용하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성별, 연령, 학력 등 인적속성들과 고용형태, 기업규모, 직업 및 산업분야 등 직장속성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Mincer의 임금방정식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포함하여 모형을 확장시켜 분석하였다.(다만, 경력기간, 시간제 여부 등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설명변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표 8 기초통계량(N=3,336)

		평균, 비율	표준편차
남성		0.46	0.50
연령		29.20	3.71
결혼(기혼)		0.23	0.42
가구주		0.31	0.46
직업훈련 경험 유		0.12	0.32
자격증 유		0.55	0.50
대학-취업 지역 유형	유형1(수도권 대학-수도권 현직장)	0.37	0.48
	유형2(수도권 대학-비수도권 현직장)	0.04	0.20
	유형3(비수도권 대학-수도권 현직장)	0.17	0.38
	유형4(비수도권 대학-비수도권 현직장)	0.42	0.49
상용직		0.89	0.32
기업체 규모	소기업	0.41	0.49
	중기업	0.19	0.39
	대기업	0.40	0.49
	주당 평균 근로시간	42.26	7.48
노동조합 유		0.21	0.41
산업	제조업	0.18	0.39
	건설업	0.03	0.18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0.14	0.35
	도소매/숙박/음식업	0.15	0.3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48	0.50
직업	경영/사무/금융/보험직	0.36	0.48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0.14	0.35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군인	0.23	0.4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0.06	0.23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정소/영업/판매/운전/운송직	0.15	0.35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농림어업직	0.07	0.25
	적정학력	0.79	0.41
학력미스매치	학력부족	0.12	0.32
	학력과잉	0.09	0.29
기술미스매치	적정기술	0.81	0.39
	기술부족	0.10	0.30
	기술과잉	0.08	0.28
전공일치		0.85	0.36

셋째, 직업속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종사상지위에서 상용직 비율이 89%로 임시/일용직(11%)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기업체 규모에서는 소기업 41%, 중기업 19%, 대기업 40%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2.3시간 이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21%로 나타났다. 산업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8%, 직업에서는 ‘경영/금융/무역/사무직’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학력 미스매치(부족+과잉), 기술미스매치(부족+과잉), 전공 미스매치가 각각 21%, 19%, 15%로 확인된다.

먼저 ‘모형 I’에서는 임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개인의 특성 변수만을 통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일반적인 임금방정식 추정결과와 유사한 방향으로 추정계수 값들이 도출되었다. 남성의 임금수준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인 경우 비가구주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으로 추정되었고, 기혼인 경우가 미혼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 임금격차는 개인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발견되고 있는데 기준그룹인 ‘유형4’에 비해 ‘유형1’에 속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약 8.8%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 2’의 경우는 11.1% 그리고 ‘유형3’은 8.8%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본모형에 고용형태, 기업체규모, 주당평균근로시간, 노동조합 유무 등의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통제한 결과를 ‘모형 2’에서 보여주고 있다. 임시/일용직을 기준으로 상용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31.8%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체 규모에서는 50인 미만 소기업을 기준으로 중기업(50~299인)은 9.1%, 대기업(300인 이상)은 15.6% 높은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비해 10.6%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형태, 기업체규모 등의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대학-취업 지역 유형별 임금격차는 그 크기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9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취업지역 유형에 따른 임금 효과(기본 모형과 고용형태/기업체규모 등 포함)

		모형 I		모형 II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2.962***	0.285	2.878***	0.251
성별(기준:여성)		0.101***	0.014	0.075***	0.012
연령		0.126***	0.019	0.083***	0.017
연령제곱		-0.001***	0.000	-0.001***	0.000
결혼(기준:미혼)		0.041**	0.017	0.021	0.015
가구주 여부(기준:비가구주)		0.137***	0.015	0.090***	0.013
직업훈련 경험(기준:비경험)		-0.010	0.019	-0.025	0.017
유형 (기준:유형 4)	유형 1	0.088***	0.014	0.074***	0.012
	유형 2	0.111***	0.033	0.065**	0.029
	유형 3	0.088***	0.018	0.078***	0.016
상용직(기준:임시/일용직)		-	-	0.318***	0.018
기업체 규모 (기준:소기업)	중기업	-	-	0.091***	0.015
	대기업	-	-	0.156***	0.013
주당 평균 근로시간		-	-	0.011***	0.001
노동조합 유무(기준:없음)		-	-	0.106***	0.015
산업 (기준:제조업)	건설업	-	-	-	-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	-	-	-
	도소매/숙박/음식업	-	-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	-	-	-
직업 (기준: 경영/사무/금융/ 보험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	-	-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 소방직/군인	-	-	-	-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	-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영업/ 판매/운전/운송직	-	-	-	-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농림어업직	-	-	-	-
	학력미스매치 (기준:적정학력)	-	-	-	-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학력부족	-	-	-	-
	학력과잉	-	-	-	-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기술부족	-	-	-	-
	기술과잉	-	-	-	-
전공일치(기준:전공불일치)		-	-	-	-
R-Square		0.261		0.440	
Adj R-Sq		0.259		0.437	
N		3,336		3,336	

주: 1. '유형1'은 수도권 대학-수도권 현직장, '유형2'는 수도권 대학-비수도권 현직장, '유형3'은 비수도권 대학-수도권 현직장, '유형4'는 비수도권 대학-비수도권 현직장임.

2.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고용형태, 기업체규모, 주당평균근로시간, 노동조합 유무 등의 설명변수와 더불어 산업 및 직업,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상태 변수 더미를 등을 통제한 결과를 ‘모형3’과 ‘모형4’에서 보여주고 있다. 모형1과 비교해서 대학-취업 지역 유형별 변수의 추정값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모형4’의 추정결과를 보더라도 ‘유형4’ 기준으로 ‘유형1’은 7.1%, ‘유형2’는 5.6%, ‘유형3’은 7.1%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직업에서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을 기준으로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과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군인’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집단(적정학력, 적정기술)과 비교하여 학력 및 기술부족 미스매치(상향취업)는 각각 3.1%, 5.3%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하향취업)는 각각 7.9%, 7.6%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공일치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7.8%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졸자의 취업지역 유형에 따른 임금 효과(산업/직업과 미스매치 포함)

		모형 III		모형 IV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3.157***	0.246	3.093***	0.242
성별(기준:여성)		0.055***	0.012	0.050***	0.012
연령		0.070***	0.017	0.073***	0.016
연령제곱		-0.001**	0.000	-0.001**	0.000
결혼(기준:미혼)		0.016	0.014	0.016	0.014
가구주 여부(기준:비가구주)		0.081***	0.013	0.080***	0.012
직업훈련 경험(기준:비경험)		-0.032*	0.017	-0.024	0.016
자격증 취득 여부(기준:미취득)		-0.022**	0.011	-0.020*	0.011
유형 (기준: 유형 4)	유형 1	0.062***	0.012	0.071***	0.012
	유형 2	0.052*	0.028	0.056**	0.027
	유형 3	0.064***	0.015	0.071***	0.015
상용직(기준:임시/일용직)		0.281***	0.018	0.243***	0.018
기업체 규모 (기준:소기업)	중기업	0.074***	0.015	0.065***	0.015
	대기업	0.143***	0.013	0.131***	0.013
주당 평균 근로시간		0.011***	0.001	0.011***	0.001
노동조합 유무(기준:없음)		0.095***	0.014	0.095***	0.014
산업 (기준:제조업)	건설업	-0.008	0.031	-0.011	0.031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0.013	0.019	0.014	0.019
	도소매/숙박/음식업	-0.108***	0.021	-0.092***	0.02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112***	0.017	-0.117***	0.016
직업 (기준:경영/사무/ 금융/보험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0.122***	0.017	0.105***	0.017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 소방직/군인	0.059***	0.016	0.042***	0.016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0.030	0.025	0.012	0.02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영업/ 판매/운전/운송직	-0.045**	0.019	-0.024	0.019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농림어업직	-0.029	0.024	-0.026	0.023
학력미스매치 (기준:적정학력)	학력부족	-	-	0.031*	0.019
	학력과잉	-	-	-0.079***	0.026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기술부족	-	-	0.053***	0.020
	기술과잉	-	-	-0.076***	0.027
전공일치(기준:전공불일치)		-	-	0.078***	0.016
R-Square		0.472		0.492	
Adj R-Sq		0.468		0.488	
N		3,336		3,336	

주 : 1. '유형1'은 수도권 대학-수도권 현직장, '유형2'는 수도권 대학-비수도권 현직장, '유형3'은 비수도권 대학-수도권 현직장, '유형4'는 비수도권 대학-비수도권 현직장임.

2.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에서 유의함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1~14차(2007~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졸업자의 특성과 취업한 일자리의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른 취업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기준으로 대학교-현직장 소재지역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취업 지역 유형(유형1~유형4)에 따른 분포에서는 유형2를 제외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현 직장 입직시점)별 분포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25-34세 연령범위에 약 80%가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현 거주지역 분포를 보면 대학 소재 지역과 현 직장 소재지역이 동일한 경우(유형1, 유형4)는 현 거주지역도 95% 이상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2(수도권 대학-비수도권 일자리)와 유형3(비수도권 대학-수도권 일자리)의 경우는 현재 일자리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청년층이 지역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형2(133명)보다는 유형3(578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지역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종사상 지위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상용직 비율이 9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체 규모에서는 50인 미만 소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유형3과 유형4가 높고(41.0%, 44.2%), 대기업(300인 이상)에 취업한 경우는 유형1과 유형2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2.8%, 54.9%).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경우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비교적 고용상태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대학을 졸업한 경우, 비수도권 지역 일자리로 진입한 청년층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에 입직한 청년층도 상당수 중소기업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중을 보면 유형1이 78.7%, 유형2는 73.6%, 유형3이 82.4%, 유형4가 79.4%로 나타났다. 전체를 기준으로 한 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은 유형2가 306.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형4가 255.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성별을 포함해서 보면 유형2의 남성은 320.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형4의 여성이 227.7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대학교 소재 지역-현 직장 지역 유형(유형1~유형4)에 따른 임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모형IV 기준), 기준그룹인 ‘유형4(비수도권 대학-비수도권 현직장)’에 비해 ‘유형1(수도권 대학-수도권 현직장)’에 속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약 7.1%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 2(수도권 대학-비수도권 현직장)’의 경우는 5.6% 그리고 ‘유형3(비수도권 대학-수도권 현직장)’은 7.1% 높게 나타났다. 결국 비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후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임금수준은 다른 유형(유형1, 유형2, 유형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기타 통제변수 중 주관적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집단(적정학력, 적정기술)과 비교하여 학력 및 기술부족 미스매치(상향취업)는 각각 3.1%, 5.3%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하향취업)는 각각 7.9%, 7.6%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공일치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7.8%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배출된 청년들이 출신지역 대학에 입학하고, 출신지역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의 기업에 취업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 청년층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희망하거나 선호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거나 수도권 기업들의 임금수준, 고용조건 등 일자리의 질이 더 좋다면 출신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 청년들의 낮은 고용률과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고학력 인적자본의 수도권 이동 및 집중에 따른 지역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내생적 성장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조동훈(2020),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43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황광훈·홍석현(2021), 「지역별 청년층의 취업특성 및 일자리의 질 분석」, 지역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충북연구원.